

<문화공보실>

◎ 질문요지

1. 신양면 신양리 문화재 포저조익선생 사당 사적비에 새겨진
글씨 받침이 잘못표기 현지 확인조치 (진다 - 짓다)
2. 충의사 저한당 기념탐 새겨진 글씨 잘못 표기 확인 조치

- 이 주 원 의원 -

1. 포저조익선생 사적비에 새겨진 글씨는 받침표기가 잘못
되어 조익선생 추모사업회에서 '짓다'로 교정 됨.
2. 충의사 저한당 기념탐에 새겨진 글씨내용 '힘쓰던'은 힘쓰
셨던의 약자 [힘쓰던]으로 과거행적에 대한 내용을 표기할
시에는 [던]으로 표기됨이 옳음.